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1~9/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성자와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6	불멸(1) 영원한 지금의 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2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	운주사	7	자아와 명상(2) 대학생을 위한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동국대학교출판부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초기불교입문:초기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4	위빳사나수행 28일	자나까비왐사/케마	한국빠알리성전협회	9	예수님은 법 받은 미륵존여래불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5	구루빠드마쌈바와 기원문(연꽃에서 화생한 불사의 화신불)	중암선혜 역저	금빛소리	10	영화스님의 선명상	영화 스님	운주사

책세상

人無我 증득, 유부 수행도의 궁극적 목적



설일체유부의 수행도론
김경희 지음
운주사 / 2만3천원

'현관'에 주목 제법과 현관 관계 검토
법의 이론 · 실천의 이론 관련성 고찰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 수행의 중심 사성제는 초기경전에 이어 설일체유부로 계승된다. 사진은 부처님이 사성제를 처음 설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초전법륜' 벽화(수덕사).

설일체유부에서 수행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현관(現觀) 개념에 대해 초기경전과 아비달마 논서를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설일체유부의 이론과 수행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한 책이 나왔다. 〈설일체유부의 수행도론〉이다.

불교의 실천적 수행의 중심에는 붓다가 깨달은 진리인 사성제가 있으며, 이는 초기경전에 이어 설일체유부로 계승된다. 유부의 사상가들은 성자의 단계인 견도에 도달하고자 제현관을 수행의 핵심 개념으로 채택했다. 현관은 초기불교에서 존재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여실지견의 경험인식과 같은 의미이다.

이 책은 명상관찰자가 분석과 통찰의 대상이 되는 존재 요소인 5온의 특징을 '무상·고·무아'로 이해하고 '자아'와 관련짓지 않은 점진적 과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중요한 유부 논서에서의 현관 개념에 주목하여 제법과 현관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법의 이론'과 '실천의 이론'의 관련성을 고찰하고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유부 수행도의 특징과 기존의 연구를 정리한다.

제2장에서는 정통 유부 문헌을 중심으로 현관 개념을 살펴보고, 현관의 대상이 되는 사성제법, 법을 관찰하는 혜(prajñā)에 대한 유부의 이해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견도 이전 가행위에 속하는 부정관과 지식념, 사념주, 사선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법의 이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유부의 수행체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 같은 수행체계는 일체법에 대한 수행자의 인식이 변화 발전하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비바사론〉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수행체계를 비교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유부의 번뇌 개념이 두 가지 관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존재론적 관점은 5위 가운데 마음(心)과 상응하는 심소법의 범주 내에서 오염된 심리작용을 총칭하는 일반명사로 번뇌의 법상(法相)을 분류 체계화한다. 둘째로 실천 인식론적 관점에서는 유부의 수행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수면(隨眠)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수행력으로 단절하기 어려운 번뇌의 특징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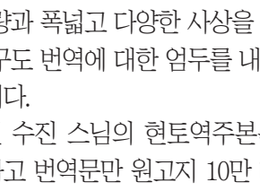
제7장에서는 〈심론〉 계열의 논서를 계승하는 〈구사론〉과 정통 유부 계열 논서의 수행 순서가 다른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행의 차이점보다는 혜가 통찰하는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부가 제시하는 수행체계는 수행자가 명상체험에서 인식하는 궁극적 실재인 일체법의 변화상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제8장에서는 고(苦)의 주요한 원인인 유신견을 존재론과 인식론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존재의 특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유부 수행도론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고찰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이 책은 5취온의 특징이 무상·고·공·무아라고 깨닫는 인무아(人無我)의 증득이 유부 수행도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유부가 제시한 수행체계의 검토를 통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아비달마 사상가들의 일체법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는 실천수행자가 선행해야 하는 중요한 학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청량국사화엄경소초〉

5차분 42권~53권 발간



청량국사화엄경소초 42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운주사 / 2만7천원

청량 징관 스님의 〈화엄경소초〉를 수진 스님이 현토역주한 〈청량국사화엄경소초〉 42권~53권이 최근 출간됐다. 전체 100권으로 기획된 역주본 중 이번 책은 1차분(2020년) 〈화엄현담〉 10권과 2차분(2021년) '세주묘엄품' 7권, 3차분(2022년) '여래현상품'~'보살문명품' 13권, 4차분(2023) '정행품'~'십행품' 11권에 이은 5차분으로 십무진장품, 승도솔궁게찬품, 도솔천궁게찬품, 십회향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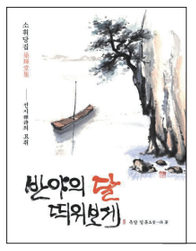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는 80권본 〈화엄경〉에 소(疏) 60권, 초(鈔) 90권을 붙인 것으로 그 분량이 방대하다. 대소승의 경(經)과 논(論)은 물론이고 유가와 노장까지 종횡으로 넘나드는 상세하고 치밀한 해설을 붙여 가장 뛰어난 〈화엄경〉 주석서로 꼽힌다. 그럼에도 이제껏 그 완역본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방대한 분량과 폭넓고 다양한 사상을 품고 있어서 누구도 번역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수진 스님의 현토역주본은 원문을 제외하고 번역문만 원고지 10만 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원문 현토와 함께 원문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한 상세한 각주로 한국불교의 사상적 근간인 화엄사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진 스님은 1971년 문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4년 수계, 해인사 강원과 금산사 화엄학림을 졸업하고, 운성 운기 등 당대 강백 열 분에게 10년간 참문수학했다. 1984년부터 수선안거 10년을 성만하고, 1993년부터 7년간 해인사 강원 강주로 학인들을 지도했다. 조계종 교육위원, 역경위원,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및 율주를 역임했다. 현재 부산 승학산 해인정사에 주석하면서, 조계종 고시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박재완 기자

목전 경계서 '무아' 깨쳐 자증하라

〈自證〉



반야의 달 띄워보세
옥당 일휴 지음
운주사 / 4만원

"반야월을 / 제대로 보려는가
비 갠 뒤 맑은 바람에 / 창공의 달을 보라
마음을 텅 비우면 / 부처인들 조사인들 있겠는가"

-옥당 일휴, '능허 거사에게'-

책 〈반야의 달 띄워보세〉는 저자인 일휴 스님이 그동안 쓰거나 번역한 시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스님이 추구하는 수행과 공부의 견처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곳곳에 붙인 여적과 평은 시를 이해하는 또 다른 경지다. 책은 '게송시 / 솔바람 일자 풍경 울고', '번역시 / 빈 배에 달빛만 가득 싣고' '한시 작법 격율론 일부' '자유시 / 그래도 세상에는 꽃 피고지고' '주석 / 징검다리 또는 뗏목이려니' 편으로 구성했다.

저자는 불교는 논리라고 규정한다. 선(禪) 불교도 당연히 '선의 논리'를 적용해야 '선적 깨달음'의 취지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제법의 오묘한 교리를 배제하고, 선정의 신비적인 현묘한 경지를 배척한다. 저자에게 불교가 주는 대명제는 목전 경계에서 '무아' 또는 '공함'을 깨쳐 자증(自證)하라는 것이며, 그 자증은 곧 붓다의 초전법륜에서 제시하는, 인생의 전반에 걸쳐 수시로 나드는 삶의 괴로운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보아[正見] 현장에서 해탈을 성취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괴로운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본다[正見]'는 것은 '심리적·물리적 생멸 변화[無常]를 지각하고 인식함에 그 연기(緣起)하여 변화하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지견[知見]을 확립하고 자증하는 것이다. 이 자증처를 다시 말한다면, 변화하는 심리적·물리적 사상은 무아요 무자성이요 무자체인, 즉 공성인 존재요, 통찰하는 인식의 '논리적 귀결처'임을 명징하게 증득하는 것이다.

이렇듯 수행자가 이 법계의 본지풍광을 정견한다면, 마음은 밝고 맑아 치우쳐진 변견(邊見)에 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의 번뇌에서 해탈하고 새로운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서, 삶의 터전에서는 하는 일마다 자유롭고 자기 자신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행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깨달아야 할 불교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스님, '광우 스님' 신간 출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불보살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분명 응답하십니다."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삶이 힘겨울 때,
눈앞의 역경에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 바로 '기도'하라!

지극한 기도로 운명을 바꾼 이들의 신비로운 가피담과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의 오묘하고 진실한 힘을 깨닫게 하는
광우 스님의 감동적인 설법!

광우 스님이 들려주는
기도 가피 이야기
내 삶을 기적으로 바꾸는 신묘한 기도의 힘

광우 지음 | 368쪽 | 20,000원



광우 스님 전국 불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장 '핫'한 수행자. BTN불교TV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세 시즌째 진행하고 있는 스님은 옛이야기를 듣는 듯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법, 귀에 쏙쏙 들어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공감의 이야기들로 많은 시청자들의사랑을 받고 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당신의 인간관계는 안녕합니까?"

완벽한 혼자로 살아갈 수 없다면
이 책이 전하는 '지혜'에 주목하라!



세계적 베스트셀러 『붓다 브레인』의 저자, 릭 핸슨.
그가 고전의 지혜와 과학적 연구,
그리고 임상 체험에서 길어 올린
'인간관계의 베테랑이 되는 법'

관계에
능숙해지는 법
쿨하고 단단한 인간관계를 위한
신경심리학자의 지혜

릭 핸슨 Ph.D. 지음 · 김윤종 옮김 | 344쪽 | 21,000원

